



중1-1 국어 미래엔(민)

2026 중1-1 국어 미래엔(민) | 2(2) 추론하며 듣기 기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이 단원에서는 추론하며 듣기의 개념과 방법을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화자의 말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의도, 감정, 관점 등을 언어적·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과 상황 맥락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추론의 과정에서 상황 맥락을 고려한 의미 해석, 화자의 표현 방식 분석, 듣는이의 반응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이 단원에서는 표현의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단서 찾기,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의 기능 해석 방법 등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1~10】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



(나)



㉠

우리 이심전심이었구나.



㉡

내 코가 석 자인데…….



(다)

㉠



㉡



(라)



1. (가)~(라)에서 추론하며 듣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 ② 화자의 언어적 표현을 분석해야 한다.
- ③ 화자의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살펴야 한다.
- ④ 듣는 사람의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만 해석해야 한다.
- ⑤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단서를 종합해야 한다.

2. (가)의 상황 맥락과 화자의 의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a에서 점원은 손님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질문했다.
- ② b에서 의사는 환자의 신발 착용감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질문했다.
- ③ a에서 점원은 손님 신발 착용 여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질문했다.
- ④ b에서 의사는 환자의 신체적 불편함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질문했다.
- ⑤ a와 b에서 화자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3. (가)의 ㉠과 ㉡의 상황을 고려하여 “많이 불편하세요?”에 대한 알맞은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 “네, 신발이 딱 끼어요.” / b: “네, 팔이 육신거려요.”
- ② a: “네, 팔이 너무 아파요.” / b: “네, 신발이 불편해요.”
- ③ a: “아뇨, 이 신발이 정말 좋아요.” / b: “아뇨, 팔이 하나도 안 아파요.”
- ④ a: “네, 이 신발은 편해요.” / b: “네, 다리가 불편해요.”
- ⑤ a: “네, 병원에 와서 좋아요.” / b: “네, 신발이 딱 맞아요.”

4. (나)에서 ㉠과 ㉡의 대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a는 건우의 제안에 동의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b는 민서가 정현이를 돕기 어려운 상황임을 나타낸다.
- ③ a에서 사용된 ‘이심전심’은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④ a와 b는 같은 제안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
- ⑤ b에서 사용된 ‘내 코가 석 자’는 자신이 바빠도 남을 도와야 함을 의미한다.

5. (나)에서 ㉢를 화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바꾼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아니, 나도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정현이를 도와 주기 어려워.
- ② 응, 나는 정현이를 돕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힘들어.
- ③ 아니, 나는 정현이를 돕고 싶지 않아.
- ④ 응, 네가 정현이를 도와주면 나도 나중에 도와줄게.
- ⑤ 아니, 정현이를 도와줄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친구한테 부탁해 봐.

6. (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아들이 엄마의 질문에 따라 스스로 게임 종료 시각을 정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엄마의 말투와 표정에서 아들에게 화가 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b에서는 시계가 11시를 가리켜,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 ④ a와 b 모두에서 엄마는 같은 표정과 말투로 질문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엄마가 비교적 차분하게 대화하며 아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7. (다)에서 ㉠에 담긴 의도를 알맞게 추론한 것은?

- ① 단순히 현재 시각을 물어보려는 의도이다.
- ② 게임을 하느라 시간을 모를까 봐 알려주려는 의도이다.
- ③ 아들이 게임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려는 의도이다.
- ④ 아들이 게임 시간을 넘겼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꾸짖으려는 의도이다.
- ⑤ 아들에게 게임 시간을 줄이라는 조언을 하려는 의도이다.

8. (라)에서 승주의 발화 의도를 추론하기 위한 단서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승주가 여러 권의 책을 들고 있다는 상황
- ② 승주가 땀을 흘리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점
- ③ 승주가 “민호야!”라고 먼저 말을 걸었다는 점
- ④ 민호가 “시간 있어?”라고 말한 어조와 표정
- ⑤ 승주가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다는 점

9. (라)에서 승준이가 “너, 시간 있어?”라고 말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민호와 잡담을 나누고 싶어서
- ② 민호에게 책을 빌려 달라고 하려고
- ③ 민호와 약속 시간을 정하려고
- ④ 민호에게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하려고
- ⑤ 민호에게 책 드는 것을 도와 달라고 간접적으로 부탁하려고

10. (라)에서 승주의 질문에 대한 민호의 대답으로 <조건>에 알맞은 것은?

<조건>

- 화자의 질문 의도를 받아들이는 대답을 할 것.

- ① 응, 내가 들어줄게.
- ② 아니, 나 지금 할 일 있어서 안 돼.
- ③ 미안, 나도 손에 든 게 많아.
- ④ 근데 나 힘이 약해서.
- ⑤ 지금은 좀 힘든데, 다음에 도와줄게.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커지는 ‘디지털 정보 ㉠격차’, “따라가기 힘들어요.”

진행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길어지면서 사람을 직접 마주하는 일은 줄어들고 그 자리를 무인 시스템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계층은 따라가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기자입니다.

(나) 기자: 한 패스트푸드점, ㉢어르신들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어색한 순간을 마주합니다. 비대면 주문을 하는 기계가 있지만 그대로 지나치고, 주문을 받을 직원도, 물어볼 사람도 없어 한참을 서 있다가 포기합니다.



@나는 불편하죠.
힘들어요. 하다가 안 돼서
'에이, 나가야겠다' 하고
나온 거예요.

(다)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키오스크가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글씨는 작고 속도는 빨라서, 고령층에게는 어렵고 점자를 써야 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 기자: 정부가 '디지털 정보 격차' 정도를 조사해 보니,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기기 접근 정도는 일반 국민 대비 91.7%로 나타났지만, 활용 역량 수준은 60.2%에 불과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는 열에 아홉이 가지고 있지만 이용 능력은 크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마) 기자: 금융 서비스의 비대면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를 활용하지 못해 우대 금리 등 실질적인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11. (가)~(마)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해 정보 취약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다루고 있다.
- ② (나)에서는 무인 주문 기기 사용이 어르신들에게 쉽고 편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다)에서는 키오스크 방식이 확대되면서 장애인과 노년층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④ (라)에서는 정보 취약 계층이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활용 능력이 낮음을 설명하고 있다.
- ⑤ (마)에서는 금융 서비스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보 취약 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12. ㉠~㉢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정보 격차가 존재하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② ㉢에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정보 취약 계

층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 ③ ㉡에서 어르신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접할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④ ㉠에서 정보 취약 계층은 키오스크 사용이 어렵고, 결국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 ⑤ ㉢에서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정보 취약 계층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13. <보기>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맞게 추론한 것은?

<보기>
어르신이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하는 면담을 제시한 까닭이 무엇일까?

- ① 키오스크의 장점을 강조하여 사람들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② 정보 취약 계층이 키오스크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 ③ 키오스크 사용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
- ④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실제 사례를 통해 강조하기 위해서
- ⑤ 키오스크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4. 기자가 '디지털 정보 격차'에 대한 뉴스를 보도한 의도를 알맞게 추론한 것은?

- ① 디지털 기술의 편리함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 ②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 ③ 정보 취약 계층이 겪는 현실을 알리고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 ④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 ⑤ 정보 격차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15. (라)의 ㉔에서 기자가 실태 조사 결과를 제시한
까닭을 알맞게 추론한 것은?

- ① 디지털 기기의 보급률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 ② 디지털 정보 격차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 ③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
시하기 위해서
- ④ 정보 취약 계층이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
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 ⑤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계층과 적게 사용
하는 계층을 비교하기 위해서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듣는 사람의 감정도 중요한 요소이다. 화자의 의도는 단순한 객관적 분석만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듣는 사람의 감정과 관계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 ① 상황 맥락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시간, 화자의 태도 등을 포함하며, 이를 고려해야 정확한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 ② 화자가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을 분석하여 숨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화자의 준언어적 표현인 목소리 크기, 말투와 비언어적 표현인 표정, 몸짓도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 ⑤ 추론하며 듣기 위해서는 여러 단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정답 ④

㉞에서 의사는 환자의 신체적 불편함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질문했으므로 정답이다.

- ① ㉞에서 점원은 손님 건강 상태가 아니라 신발 착용감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질문했다.
- ② ㉞에서 의사는 신발 착용감이 아니라 환자의 신체적 불편함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질문했다.
- ③ ㉞에서 점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신발을 신었는지 아니라 신발이 편한지 여부이다.
- ⑤ 두 상황 모두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각각 신발 착용감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대화이다.

3. 정답 ①

㉞에서 신발 착용감을 묻는 상황이므로 “네, 신발이 딱 끼어요.”는 적절한 대답이다. ㉞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묻는 상황이므로 “네, 팔이 욱신거리요.”는 적절한 대답이다.

②, ③, ④, ⑤ (가)의 ㉞와 ㉞의 상황에 알맞은 대답이 아니다.

4. 정답 ⑤

‘내 코가 석 자’는 자신이 너무 바빠서 남을 도울 여유가 없다는 뜻이지, 바빠도 남을 도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 ① ㉞에서 ‘이심전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건우와 민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정현이를 도와주자는 제안에 동의하는 의미이다.
- ② ㉞에서 ‘내 코가 석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민서는 자신의 사정이 바빠서 정현이를 도와주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 ③ ‘이심전심’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적절하다.
- ④ 정현이를 도와주자는 같은 제안에 대해 ㉞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㉞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므로 적절하다.

5. 정답 ①

‘내 코가 석 자’라는 표현의 의미는 자신이 바빠서 남을 도울 여유가 없다는 뜻이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풀어쓴 “나도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정현이를 도와주기 어려워.”가 적절하다.

- ② 민서가 ‘내 코가 석 자’라고 말한 것은 돕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자신의 일이 너무 급해서 정현이를 도와줄 여유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내 코가 석 자’는 돕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내 코가 석 자’는 나중에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민서는 자신의 사정이 급해서 도와줄 수 없다는 의미이지, 다른 친구에게 부탁하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원래 의도와 다르다.

6. 정답 ④

두 상황은 표정과 말투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㉞에서는 평온하고 차분한 대화가 오가지만, ㉞에서는 화자의 감정이 격해져 있다.

- ① ㉞에서 엄마는 “게임 몇 시까지 할 거니?”라고 물으며, 아들이 스스로 시간을 정하도록 유도한다.
- ② ㉞에서는 엄마가 인상을 찌푸리고 손가락으로 시계를 가리키며 못마땅한 말투로 말하고 있으며

로, 화가 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③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어, 아들이 약속한 10시를 넘겼다는 점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⑤ ㉠에서는 엄마가 대화를 유도하듯 차분하게 질문하며 아들의 반응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

7. [정답] ③

아들은 엄마와 약속했던 10시를 넘겨 11시까지 게임하고 있으며, 엄마는 못마땅한 말투로 “지금 몇 시니?”라고 말한다. 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들을 나무라는 의도로 가장 적절하다.

① “지금 몇 시니?”는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에서는 못마땅한 말투와 화난 표정, 손짓이 함께 드러난다. 이는 단순 질문이 아님을 보여 준다.

② 시간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약속 불이행에 대한 꾸짖음이 중심이다.

④ 아들이 왜 게임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시간 약속 위반에 대한 꾸짖음이 중심이다.

⑤ 조언보다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질책에 초점이 있다.

8. [정답] ⑤

승주가 친구들과 웃고 있는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무거운 책을 들고 있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상황적 단서이다.

② 땀을 흘리고 난처한 표정을 짓는 것은 몸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드러낸다.

③ “민호야!”라고 이름을 부른 것은 도움을 요청하려는 말의 시작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민호의 반응을 통해 승주의 발화를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9. [정답] ⑤

승주는 무거운 책을 들고 땀을 흘리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고, “시간 있어?”라고 말한 것은 직접적으로 도와달라는 표현 대신 간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추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① 승주는 책을 여러 권 들고 힘든 표정을 짓고 있어 잡담이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책을 빌려 달라는 의도는 상황 맥락상 전혀 드러

나지 않는다.

③ 시간 약속이나 일정 조율에 대한 내용은 없다.

④ 함께 공부하자는 제안은 대화나 상황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10. [정답] ①

승주는 여러 권의 책을 들고 힘들어하며 간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응, 내가 들어줄게.”는 화자의 숨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용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하다.

②, ③, ④, ⑤ 도움을 거절하는 말로, 화자의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 [정답] ②

㉠에서는 키오스크가 어르신들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인 시스템이 증가하면서 정보 취약 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다루고 있다.

③ ㉢에서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기기가 노년층과 장애인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④ ㉣에서는 정보 취약 계층이 디지털 기기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능력이 낮아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⑤ ㉤에서는 금융 서비스의 비대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보 취약 계층이 금융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12. [정답] ③

㉠에서 “어르신들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어색한 순간을 마주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므로,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불편함을 느낀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격차’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② ㉢에서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계층은 따라가기조차 힘든 상황이라는 문장을 통해 정보 취약 계층이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움을 유추할 수 있다.

④ ㉣에서 “나는 불편하죠. 힘들어요. 하다가 안 돼서 ‘에이, 나가야겠다’ 하고 나온 거예요.”라는 내용

이 나오므로, 정보 취약 계층이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워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㉔에서 “디지털 기기 접근 정도는 91.7%로 나타났지만, 활용 역량 수준은 60.2%에 불과했습니다.”라는 설명이 나오므로, 기기를 가지고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13. 정답 ④

면담에서 어르신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며 겪는 불편함을 직접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키오스크 사용의 어려운 현실을 실제 사례로 보여 주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① 면담에서는 키오스크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② 정보 취약 계층이 키오스크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내용이다.

③ 균형 있는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⑤ 키오스크를 완전히 없애자는 주장보다는, 정보 취약 계층이 겪는 문제를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4. 정답 ③

뉴스의 핵심은 정보 취약 계층이 키오스크, 비대면 금융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명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과 문제의식을 유도하는 데 있다.

① 이 뉴스는 디지털 기술의 장점보다는 그로 인한 부작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② 정책 소개보다는 현실 문제 제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④ 기기 사용법을 설명하거나 교육하는 목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오히려 정보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5. 정답 ②

㉔에서는 디지털 기기 접근 정도는 91.7%지만 활용 역량은 60.2%에 불과했다는 실태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기를 보유하는 것과

실제 활용하는 것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음을 보여 주려는 의도이므로 적절하다.

① 기자는 기기 보급률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 능력의 부족을 강조하고 있다.

③ 실태 조사는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해결 방안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④ 정보 취약 계층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 역량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⑤ 단순히 많이 사용하는 계층과 적게 사용하는 계층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취약 계층의 활용 역량 부족 문제를 부각하려는 의도이다.